"칵테일 마시며 스님과 고민 상담"

직장인 삶의 애환 달래는 일본 신주쿠 '스님 BAR'

박영빈 객원기자

새로운 포교를 위해 사찰이나 스님들이 카페나 이색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늘 화제인 일본. 이제는 스님들이 운영하는 칵테일 바도 등장했다. 일본의 TV '도쿄뉴스'는 6월 6일 이색 바로 유명한 '스님 바'를 특별히 소개했다.

술집골목으로 유명한 신주쿠의 일각에 자리 잡은 칵테일 바 'VOWZ BAR(스님 바)'는 현역 스님들이 운영하기로 유명한 칵테일 바다. 음주를 금하는 스님들이 운영하는 칵테일 바라는 점이 모순적이지만, 휴일 저녁엔 항상 만석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스님 바의 점내에는 불단이 모셔져 있고, 불경이 쓰인 족자나 탱화가 벽에 걸려있다. 테이블이나 의자까지 사찰에서 사용하는 그대로 가져와 마치 법당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심지어 매일 자정을 넘긴 뒤 잠시 장사를 중단하고 손님들과 함께하는 독경과 법문은 바의 명물로 꼽힌다.

스님 바를 대표해 인터뷰에 응한 후지오카 스님은 "바의 컨셉을 '누구나 올 수 있는 사찰'로 설정하고 인테리어를 구성했다. 현대의 많은 일본인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장례나 제사뿐이라는 것이 현실이지만, 불교는 원래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바의 콘셉트를 설명했다.




'스님 바'에서 칵테일을 제조하는 후지오카 스님(사진 왼쪽)과 가게 안에 조성된 불단 및 만다라(사진 오른쪽)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출처=TV 도쿄뉴스

여러 종파 스님들 모여 개업
법당 인테리어 빌려와 '눈길'
손님들과 '독경' '법문' 명물
"어려운 속내 털어놓고 가길"

또 다양한 불교용품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손님들이 불구들의 사용법이나 정체에 대해 물어오는 것에서 불교 이야기가 시작된다"며 단순한 인테리어용이 아닌, 실제 사용되고 있는 불구로서의 가치를 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 바는 종파를 가리지 않고 스님들이 매일 번갈아 가며 가게를 지킨다. 후지오카 스님도 현재 도쿄도내의 모 사찰 주지로 활동하고 있다.

후지오카 스님은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바라는 점은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기 어려운 속내를 털어놓았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 곳에서 모두가 편안해지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한다"며 실제 바에서 상담이 많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손님들은 스님이 운영한다는 독특함과 한두 잔의 술에 긴장을 풀고 상담을 요청한다고 한다.

스님은 이어 "상담을 받은 손님들 가운데 '이런 방법이 불교에 있을 줄이야!' 하고 놀라는 분들이 많다. 불교에 대한 선입관이 사라졌다는 피드백을 자주 듣게 된다"며 상담으로 단골이 된 손님들도 있다고 말했다.

스님 바는 칵테일 바라는 특성상 스님들이 직접 칵테일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칵테일에는 '극락정토', '무간지옥'과 같은 불교적인 이름이 붙어있다. 칵테일 외에 일본주도 판매하고 있다. 단 이 주류들은 모두 사찰에서 주조한 전통주다. 약용으로 사찰에서 주조하던 술을 구해 메뉴로 올린 것이다.

안주류도 사찰음식을 응용해 만들었다. 육류와 어패류, 오신채를 넣지 않은 안주를 개발해 내놓고 있다. 후지오카 스님은 "금지된 식자재를 제외하고, 정갈한 사찰음식의 정신을 담은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일하는 스님들에겐 수행의 일환"이라며 웃어 보였다.

日 비구니 사찰에 비구 주지 취임

교토 다이츄안, 출가자 감소에 고육지책 선택

출가자 감소와 신도의 고령화에 따라 무인 사찰이 늘고 있는 일본. 특히나 적은 비구니 도량은 그 사세를 유지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다. 한편 유서 깊은 비구니 도량에 비구스님이 주지를 맡게 되어 화제다. 6월 4일 일본의 '교토 신문'은 이 놀라운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교토시에 소재한 '다이츄안(袋中菴)'은 1619년 개산한 유서 깊은 정토종 사찰이다. 개산과 함께 비구니 도량으로 이름이 높았으나, 절을 이을 후계 문제가 대두되면서 400년 만에 비구스님이 주지에 취임했다.

비구인 카바타 엔쿄(賀幡圓恭) 스님은 5월 4일 진산식에서 정식으로 다이츄안 19대 주지를 이었다. 전대 주지인 카바타 엔쥰(賀幡圓純) 스님은 혈연관계상 속가 이모다. 엔쿄 스님은 "원래 스님이신 아버지가 19대 주지를 잇기 위해 60년 정도 전부터 다이츄안에서 생활해 왔다"면서 당시에도 출가자 감소, 특히 비구니 출가자 감소가 불교계의 문제였다고 전했다. 스님은 "아버지와 내가 다이츄안에서 수행할 당시 '비구니 도량이 사라지는 것인가'라는 의혹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구니 도량의 전통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에 납득한 대중스님들이 "앞으로 도량은 젊은 세대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엔쿄 스님이 주지를 잇게 됐다. 엔쿄 스님은 "원래 다이츄안을 개산한 창건주도 비구스님이었기에, 떳떳한 마음으로 주지를 이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서 깊은 비구니사찰 다이츄안에서 주지로 취임한 비구 엔쿄 스님. 사진출처=교토신문

한편 다른 비구니 사찰들도 후계자를 찾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다. 교토에 소재한 비구니 도량 도쿠운지(德雲寺)의 경우 다른 사찰에서 수행하던 스님으로 대를 이었다. 또 다른 도량의 주지스님은 "좋은 때에, 인연 있는 분이 오길 기다린다"면서도 대처가 일반적인 비구승에 비해, 비구니 사찰은 독신전통이 강해 혈연관계에 의한 절의 대물림이 어렵다는 현실을 꼬집었다.

박영빈 객원기자

"서양철학 받아들여야 불교 발전"

불교학자 에델글래스 박사, 자신 논문서 견해 밝혀

일반적으로 서양철학이 불교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전해지지만, 최근 불교가 서양철학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불교 전문지 '라이온즈 로어'는 불교가 서양철학에서 채택해야할 견해에 대해 윌리엄 에델글래스 불교학 박사의 주장을 지난 5월호 특집으로 소개했다.

이 논의에서 에델글래스 박사는 불교는 철학과 윤리적인 분석에 대해 광대하고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전통이 새로운 세대들의 경험과 우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전통적인 불교도들이 서양의 사상이 불교적인 삶을 관여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기도 한다고 말하면서, 서양에서 논의된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서양의 정치이론적 견해와 환경문제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고전 불교학과 만나 새로운 불교 철학으로 탄생했다고 전했다.

에델글래스 박사는 "우리의 현대적인 관심사는 정의와 불평등, 다문화 사회, 정보기술의 만연 등"이라며 "불교도라면 오히려 이런 현실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양철학에서 중요시하는 심리학, 창의력, 자연환경, 사회적 참여의 요소들이야말로, 불교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도구로 꼽은 것이다. 그는 "우리 자신의 담론 밖에서 새로운 해석의 틀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존의 학문을 재해석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불교적 담론에서 자주 다뤄지지 않았던 무신론의 틀에서 보았을 때 불교는 '변형적 무신론'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해석된다. 불교전통이 살아있는 아시아권 불교도들이 서양철학을 배우고, 반대로 서양의 학자들이 순수한 불교철학을 배우면서 서로에 혼합되지 않은 철학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에델글래스 박사는 "사람들이 가진 변화와 깨달음의 가능성을 불교적인 경로로 잡고, 분석과 창의적인 서양의 전통으로 마음에 자유를 주는 방식이라면 궁극적으로는 말과 개념을 넘어선 불법이 새로운 세대에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우인 객원기자

자택 뒷마당서 佛母 된 미국인

캘리포니아 맥페트릿지 씨 높이 182㎝ 불두 조성해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스트카운티에 거대한 불두가 탄생했다. 자연 화강암 바위에 새겨진 이 독특한 불두를 6월 6일, 미국의 'abc뉴스'가 보도했다.

이스트카운티, 데스칸소 지역에 등장한 불두는 높이 182㎝ 규모로 조성됐다. 무엇보다 화강암 바위를 통째로 조각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불두를 조성한 예술가 던컨 맥페트릿지는 "모든 생명은 신성하다는 뜻을 담기 위해 불두를 조성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역 환경 운동가로도 활동하는 그는 "부처님이 (자애로운 마음으로) 모든 나무와 바위를 바라보듯이, 나 또한 불상을 보러온 이들을 바라본다. 불상에는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뜻을 담았다"고 전했다.



자신이 조각한 높이 182㎝의 화강암 불두를 설명하는 멕페트릿지. 사진출처=abc뉴스

불두가 조성된 곳은 그의 자택 뒷마당이다. 맥페트릿지는 뒷마당에 자리한 화강암 바위를 천천히 살펴보던 중 불상을 조각하기에 완벽한 장소라는 영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시기적으로도 무언가를 조각하기에 좋은 때였다"며 갑작스레 불두를 조성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일 4시간 이상 수공구와 전동공구를 이용해 불두를 조각해 나갔다. 맥페트릿지는 불상의 나발을 가리키면서 "이 둥근 원을 조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나발 하나를 만드는 데 꼬박 하루가 걸렸다"고 힘겨운 조성 과정을 설명했다.

최근 불교를 믿는 이웃이 찾아와 불두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바라본 방향이 동쪽이었다는 사실도 전해줬다고 한다. 맥페트릿지는 "동쪽을 의도하고 조성한 것은 아니다. 단지 접근성 때문에 동쪽을 골랐을 뿐이지만 무엇인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다"며 웃어보였다.

이미 불두는 지역의 명소로 알려졌고, 현재까지 수백 명이 불두를 참배하고 갔다. 맥페트릿지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큰 불상을 조성할 생각이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부처님을 만나고 가길 바란다. 부처님도 널리 알려지시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의원 오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꼬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 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과학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